

고택에서 조선시대 선비 되어볼까



'2025 국가유산주간'이 오는 30일부터 6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월봉서원 선비 체험(왼쪽)과 벽진서원 목판 체험의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 30일~6월 22일 전국 400곳서 '국가유산주간' 운영
현장 답사·교육·경연 등 다채...광주 4개·전남 17개 프로그램 진행

고즈넉한 서원의 마루 끝에 앉아 사색에 잠기고, 고택의 오래된 담장 너머로 정겨운 옛 풍경을 바라본다.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국가유산을 한 걸음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30일부터 6월 22일까지 '2025 국가유산주간'을 운영한다. 전국 400여 곳의 문화유산 현장의 답사, 교육, 공연,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매개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유산을 친근하게 만나게 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처음 시작돼 올해 두 번째를 맞는 유산주간은 전국 곳곳의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엮어 낸 일종의 '지역유산축전'이다. 광주에서는 4개, 전남에서는 17개의 지역별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이 마련돼,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체험할 수 있다.
우선 광주에서는 도심 속 옛 서원이 전통문화와 선비정신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체험장으로 변한다.
광산구 월봉서원에서는 '다시, 茶時' 프로그램이 열린다. '다시(茶時)'는 고려와 조선 시대 관리

들이 하루 중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갖던 티타임을 뜻한다. 조선의 대표적 성리학자 기대승 선생을 기리며 세워진 월봉서원에서 전통차 한 잔을 음미하는 시간은 바쁜 일상 속 작은 휴식을 제공한다.
월봉서원에서는 6월 6일 '선비의 하루' 프로그램도 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이 대상이며, 참여자들은 유성복을 입고 조선 시대 선비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나만의 인장을 만들어보고, 향사례(鄉射禮·활쏘기)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어 조선의 전통 예(禮) 문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이밖에도 고려시대 어의 최사전을 주제로 건강과 지혜를 담은 '어의 체험 프로그램' (무양서원), 임진왜란을 견뎌낸 의병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벽진에서 회재를 만나다' (벽진서원) 등은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에서는 오랜 세월 지역을 지켜온 사찰, 향교, 고택 등을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체험이 펼쳐진다.
나주향교에서는 6월 7일 '향교랑 지구사랑 하go!' 프로그램이 열린다. 팝페라 그룹 '크로스 포

맨'의 무대와 함께 유성인형·잉어 호패 만들기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들이 마련돼 축제처럼 신나는 하루를 선물한다. 이어 6월 15일에는 나주향교만의 이야기로 꾸며진 마당창극 '금성별곡'이 무대에 오른다. 1480년의 나주향교를 배경으로 열 명의 유생이 펼쳐는 이야기를 통해, 향교의 역사와 전통을 함께할 만날 수 있다. 이밖에도 선비놀이 체험, 미니 전통놀이 대회 등도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기다린다.
남도의 정서가 고스란히 배어 있는 서편제 판소리를 문화유산과 함께 경험할 기회도 마련됐다. 6월 21일부터 1박 2일간 열리는 '보성소리 서편제 풍류나드라'는 서편제의 본고장 보성에서 명창을 초청해 판소리를 배우고 감상하며 남도 풍류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자리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유산주간 동안 참여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진행한다. '놀토' 앱을 통해 각 프로그램 참가 시 스탬프를 적립할 수 있으며, 누적 점수가 높은 상위 100명에게는 기념품과 인증서가 제공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국가유산주간은 지역 문화유산의 역사와 이야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이번 주간에 통해 국가유산이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스며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창현 박종회 화백과 문인화·서예 수업

진도인문아카데미 수강생 모집...다음달 14일 특강·시연

진도인문아카데미는 문인화, 서예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각각 수강생을 모집한다. 진도시에그린 한국시화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창현 박종회〈사진〉화백이 지도교수를 맡는다. 강의는 6월부터 매월 2주차, 3주차 토요일(오후 2시~7시) 진행된다.
보성출신인 박 화백은 '한국성의 발현'을 문인화의 토대로 예술성과 정신성을 추구해온 작가다. 지난 1981년 동아미술제 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그

동안 수백 회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오는 6월 14일 오전 11시에는 박 화백의 특강과 시연도 있을 예정이다.
강의가 진행되는 진도시에그린 한국시화 박물관은 여귀산 미술관, 진도 수석 박물관이 함께 자리하는 문화예술교육이 펼쳐지는 공간이다.
진도시에그린 한국시화 박물관 이지엽 대표는



관.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창현 박종회 선생은 수묵에 유채를 덧입혀 실험적인 작품을 시도했다"며 "과거의 회화를 토대로 미래로 나아가는 예술을 창조적으로 사유하고 구현한 예술가"라고 전했다.
수강료는 7만원이며, 문의는 진도시에그린시화박물관.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제 70회 호남예술제 입상자		
중창·합창	1 박상규 외 11명(광주송원초)	◇관현악 중주(초등부)
◇심사위원	◇현악 중주(초등연합)	▲은상
임선아(호남신학대 교수)	▲동상	1 유은우 외 13명(광주삼육초)
	1 최지훈 외 2명(불로초 외)	2 온진후 외 13명(전주교대전주부설초)
◇중창	◇현악 중주(초·중 연합)	◇관악 합주(초등부)
▲금상	▲금상	▲금상
1 강민주 외 13명(광주삼육초)	1 신재훈 외 3명(화개초 외)	1 오서준 외 37명(연제초)
2 박혜진 외 13명(광주송원초)	2 박아찬 외 3명(광주운암초 외)	◇관현악 합주(초등부)
◇합창	◇현악 중주(중·고 연합)	▲최고상
▲최고상	▲최고상	5 김윤하 외 78명(광주송원초)
3 최주원 외 52명(광주송원초)	1 한가연 외 13명(광주예술고 외)	▲금상
▲금상	2 김예겸 외 13명(광주교대광주부설초)	3 나유빈 외 46명(광주교대목포부설초)
2 이정연 외 38명(살레시오초)		4 정윤지 외 65명(살레시오초)
▲은상	◇현악 중주(초등부)	▲은상
1 최민우 외 22명(진월초 외)	▲금상	2 김예겸 외 45명(광주교대광주부설초)
중주·합주	1 김우진 외 13명(광주송원초)	◇관현악 합주(초·중·고 연합)
◇심사위원	▲은상	▲금상
김농학(목포대 명예교수)	1 정지민 외 13명(광주송원초)	1 한가연 외 58명(광주예술고 외)
주민혁(광주시립교향악단 수석)	2 김예겸 외 13명(광주교대광주부설초)	
◇타악 중주(초등부)		
▲금상		

무등산 자락 적시는 우리 가락

한국전통문화연구회, 다음달 6일 전통문화관 빛고을기악대제전 전야제

대한민국빛고을기악대제전의 시작을 알리는 전야제가 무등산 자락을 우리 가락으로 수놓는다.
한국전통문화연구회는 오는 6월 6일 오후 6시 30분 광주 동구 윤리동 전통문화관 너털마당에서 대한민국빛고을기악대제전 전야제 '달맞이 길'을 연다. 종설 예술감독의 연출로 꾸며지는 이번 공연은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들과 차세대 전통예술인들이 함께 만드는 세대 간 예술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공연의 시작은 금의소리연주단이 맡는다. 초·중학생 등 젊은 국악인들로 구성된 이 연주단은 '방아타령'과 '봄노래'를 가야금 병창으로 들려줄 예정이다. 젊은 예술가들의 맑은 음성과 구성진 가락이 어우러져 색다른 울림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지는 무대는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들의 깊이 있는 소리와 춤으로 채워진다. 한국전통문화연구회 이사장이자 광주시 무형유산 가야금병창보유자 황승욱 명창이 '호남가'와 판소리 적벽가 중 '화룡도'를 들려주고, 전북 무형유산 심청가 보유자인 송재영 명창은 춘향가 중 어사상봉 대목을 선보인다. 국가무형문화재 승무이수자인 김덕속 명무는 섬세한 장단과 함께 '소고춤'으로 무대를 수놓는다. 전통의 품격과 장인들의 기량이 어우러지는 순간들이 관객들을 기다린다.
전야제 다음 날인 6월 7일부터는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제24회 빛고을기악대제전이 이틀간 열린다. 관악·현악·가야금병창 등 3개 부문에서



황승욱 한국전통문화연구회 이사장. 〈한국전통문화연구회 제공〉

명인을 선발하며, 종횡대상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이 수여된다. 전통음악의 맥을 잇고 신에 국악인을 발굴하는 자리다.
황승욱 한국전통문화연구회 이사장은 "이번 전야제를 통해 전통예술의 현재와 미래가 한 무대에 오르는 의미 있는 시간을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이어지는 빛고을기악대제전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090011-00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